

2020년 2월 9일 "(성경의 큰 숲 보기 24) 이사야(2) 새 일을 행하리니"(사 43:18-21)

<도입>

이사야 전반부(~39 장)의 주된 내용이었던 이 땅에서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하고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새 출발인지에 관하여 이사야 후반부(40~66 장)의 개요를 살피겠습니다.

[1] 사 40~66 장(제 2,3 이사야서)의 배경

이사야 후반부는 바벨론에 망한 후 포로 시기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보다 100년 앞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의 영향력에 입각하여 선지자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왕하 2:3, 5**(~에 살고 있는 선지자 수련생들)

사 40 장 이후는 가장 처절했던 포로시기 동안 이사야 전통 속에서 전해진 희망의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사 40:1-2**). 그러나 무조건적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갈 때에 희망의 길이 열린다는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나가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으니깐요. 그러나 시련을 겪으면서 성도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와 심판의 특징과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contents 입니다.

[2] 새 일을 행하리라(19 절)

- 새 일과 관련하여:

- * 40:3-5 -> 희망 - 거친 광야에 주님이 오신다.
- * 40:21-22; 28-29 -> 땅, 하늘의 별의 창조주
- * 41:9-10 -> 자기 백성을 먼 곳에서 불러오심
- * 41:17-20 -> 기도 응답 -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 * 43:4-5, 7 ->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심. 모으심
- * 43:18-21(본문) -> 새 일(새 창조) - 강과 물, 짐승이 공경, 나를 위한 백성
- * 45:7 -> 빛/어둠도 창조, 평안/재앙도 일으킨다
- * 45:18, 46:9 -> 창조(창조주)를 기억하라
- * 51:3 (에덴을 직접 언급) ->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 * 58:11 -> 늘 인도하심. 영혼을 충족, 뼈마디에 원기. 물 댄 동산

새 일과 연결된 특징을 정리:

- (1) 창조주(창조)를 기억 - 하늘, 땅, 짐승, 백성 -> 피조계
- (2) 광야에 물이, 마른 땅이 샘의 근원으로 -> 에덴 연상: 네 강이 흐름(생명의 부요)
- (3) 백성들을 먼 곳(바벨론 포로)에서 불러 모으심
- (4)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심

이사야 많은 구절들은 첫 창조와 에덴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귀환할 때 어떤 방향을 잡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기 직전의 삶으로만 돌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시키고 또한 그 너머로 인도하시는 새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8:7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른 일이고,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해방)을 넘어 태초의 의도를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유업의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이 일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중대한 일이 포함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 시대(말씀의 성취의 시대)가 열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주십니다.

[3]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새 일? (무엇일까?)

이사야 전반부에서는 망하기 전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여길 때는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고, 포로시기에 망했을 때에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 말씀 그대로 듣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민족 앞에 그들이 바로 서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길은 무엇이이었을까요?

- (1) 지금 나와 공동체에 그리스도(구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올 때 주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구주에 관한 '종의 노래'가 4 개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구주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53 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입니다. 바로 이 순복하는 종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원주입니다.
- (2) 이것을 통해서 누구든 자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인간의 인간 됨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창조 때 지으신 모습(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태초에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행복의 길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집니다(**43:7, 21**).

선지서(이사야 포함)를 잘 이해하는 길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까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 세우신 완벽한 계획을 기초로 하여 완성에 이르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는 새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이 새 일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 1. 포로기 후 백성을 귀환 시킬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새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 2. 나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위의 [3]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보십시오.